

대행 스님

내 마음속에 갇혀 있는 내 마음을 벗어나게 하라

들어오면서 보니까, 바깥에 서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추워서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바깥에 춥게 서 있는 분도 고통이고, 안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분도 고통일지언댄 고통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여튼 바깥에 서 있는 분들은 서 있는 분들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신다면,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딛고 다니시다가 엎드러질 땐 반드시 그 땅을 짚고 일어나시죠. 딴 데를 짚고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천차만별로 나오는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있어서, 오직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할 땐 마음속에서 모든 이름도 나오고 행도 나오고 활용 자격도 또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먼저 저희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자 이런 질문을 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큰스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으레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귀의하는 것으로 알아 왔습니다. 수많은 제불보살 가운데 특히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 귀의해 온 데는 어떠한 까닭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은 한마음 공부와 무엇이 다른지요. 좀 자세히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매사 생활하며 살아나갈 때엔 내 마음에서 모든 여러 가지 마음도 나오면서 이름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미타라는 그 이름은 정신세계를 말하고 관세음이라는 것은 현상세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름일 뿐이지 과거 정신세계나 현실 세계나 둘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정신과 몸이 둘입니까, 어디?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장갑을 낀 손이 어떻게 장갑 낀 것 하고 손하고 둘입니까? 꼈으면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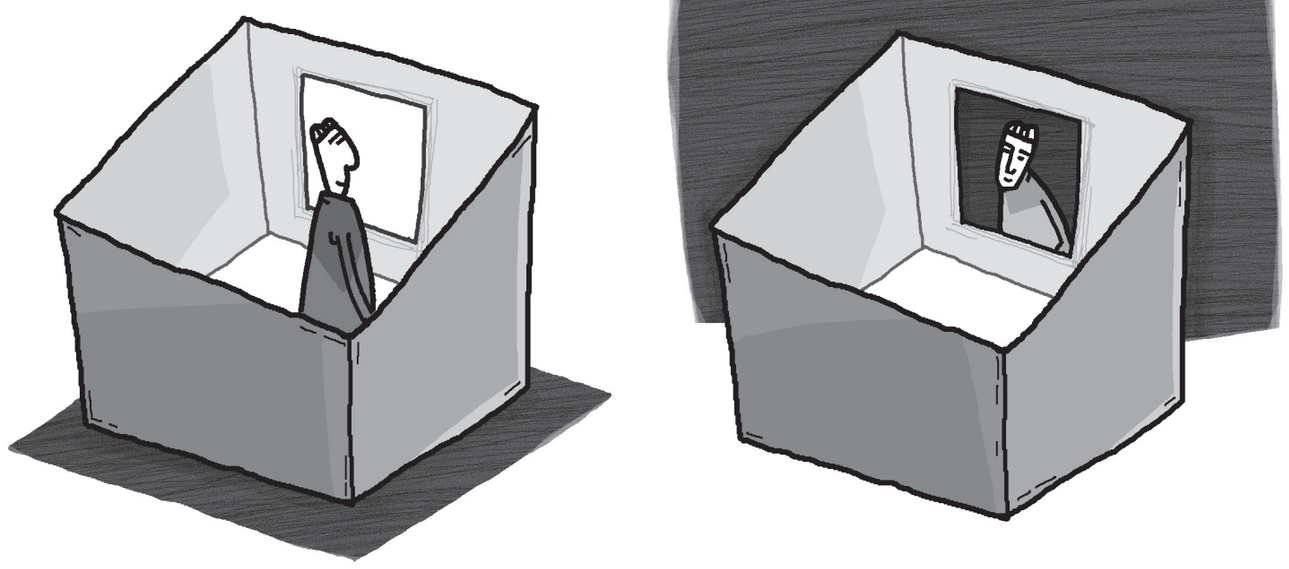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한마음 속에 아미타도 들어 있고 관세음도 들어 있으니, 여러분이 지금 아미타건 또는 관세음이건 그냥 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둘이 아닌 까닭에, 이 모두가 하나하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까닭에 일체가 다 가설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인연줄에 의해서 얽히고설켜서 돌아가는 이 가설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독불장군이 없다고 했죠. 큰 게 있으면 작은 게 있고 작은 게 있으면 큰 게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깐 아미타나 관세음보살이나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지 아미타가 따로 있고 관세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그렇게 아신다면 됩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바깥으로 찾고 거기에 끄달린다면 그건 공부하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공덕이 하나 없고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나'도 발견할 겸, 발견해서 깨달으면 둘이 아닌 도리도 알 겸, 자유자재할 수 있는 바로 나투는 방법까지도 알게끔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깥으로 관세음보살 따로 있고 아미타불이 따로 있고 이런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 집에서 아버지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하고 또 아들 노릇 하고 형 노릇 하고 사위 노릇 하고 이러시는데, 어떤 거 할 때 관세음이라 하고 어떤 거 할 때 아미타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 내 마음 아닌 내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터득이 되는 거지 내 마음 아닌 내 마음을 모르고서야 어찌 터득이 되겠습니까? 어찌 정신세계를 간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자1(남) 사람의 육신이 떨어지면 더 이상 공부하기가 어렵고 대개의 경우는 몸 떨어질 때의 의식 수준에 따라 윤회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몸 떨어지고 없는 조상의 천도식이란 무엇이며, 그 천도 의식에 조상님들께서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사람이 모두 악업을 지으면 악의 업보가 생기고 선업을 지으면 선의 업보가 생기는 법. 그러니까 얼른 말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소리죠. 그러는 법이 연결되는 반면에 바로 이 세상에서 몸 떨어지면 부닥침이 없기 때문에 공부 못 하는 법. 죽으면은 일차원이면 일차원대로 있고 사차원이면 사차원대로 있어요.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물질이 돼서 한 물건이 나온다면 부딪침이 수만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딪침에 의해서 굴러가는 수레와 같죠. 그래서 모든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그랬소?

질문자1(남) 천도 의식이란 무엇이며 그 천도 의식이 조상님들께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큰스님 응.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데 좋은 일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참 착하게 사는 사람은 착한 업이 될 것이고, 악하게 남을 그냥 원망하고 또는 이간질해서 싸움이나 붙이고 또는 사기나 해먹고 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악의 업보를 지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몸 떨어지면 그대로라. 그대로 업보에 의해서,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카세트에 그게 입력이 돼서, 스스로 입력이 돼서 바깥으로 솔솔 나오니까 그것이 바로 악업 선업의 대상이죠.

그런데 죽어도 그 차원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가 항상 있는 줄 알아요. 죽었어도 자기 몸뚱이가 항상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그 모습대로 그림자처럼 악업의 그림자가 다 나와서 한 발짝 떼어 놓을 수가 없이 가로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가 생긴 거죠. 이것이 그 차원에 따라서 야, 강을 건너갈 땐 자기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고, 체가 없는 거라는 걸 자기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요.

그 상대도 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자기도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